

목어

종교와 정치

선거법이 개정되고 종교시민단체의 선거 운동이 합법화되었다. 종교시민단체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에 간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다. 조직체로서의 종교가 효율적으로 자기주장을 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기대와, 그것이 결국은 종교간의 갈등과 반목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불교계 쪽은 우려가 더 큰 듯하다. 이 판단에는 두 가지 코드가 같이 들어 있다.

불교는 그동안 정치사회적 권력의 주변부에 있었고, 이로 인해 받은 불공정한 대접을 매우 억울해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얼핏 겁박해 보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지혜의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적극적이다. 우리는 종교계가 호교론적 관점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오히려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불교는 그동안 기독교의 배타적 자세로 인한 비방과 방화 등 수많은 형태의 해를 겪어 왔다. 이에 대해 불교계가 "눈에는 눈"이라는 하무라비 법전의 정신으로 대처했다면, 우리 또한 해를 겪어 온 분장지역에서처럼 종교전쟁의 비극과 참화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종교 사이는 설득과 경고 등의 대화를 통한 비폭력의 방식밖에 해결이 없다. 비록 그것이 멀고 험한, 그러면서도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불교는 새 밀레니엄의 화두인 평화를 리드할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불교계는 순위를 길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삼독(三毒)을 경계해야 한다. 교세 유지와 확장을 향한 탐욕과, 기독교와의 경쟁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이를 세속적 정치참여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 종교계는 결코 선거운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불교계는 더구나 이익단체임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그것은 부처님의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세속의 것은 카이저에게, 진리의 법은 부처님에게로 돌려야 한다. 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문제는 종교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 합리성에 기반한 제도와 법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더구나 아직 조계종 사태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시점 아닌가.

한형조(한국종교문화연구원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쇄인 : 김규석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0
대표전화 :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o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불교TV 새 화두 '주식 감자'

주 사장 사의 표명...투자자 유치 난항

임대로 못내 사무실 폐쇄 '설상가상'

불교TV 주양자사장은 취임한 지 1달도 안돼 주식 감자(減資)를 하지 않으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그 시기가 자민련 전국구 국회의원 승계와 맞물려 정치적 승수가 아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불교TV가 8월 6일 5천5백만원의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금오전기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10층 사무실을 폐쇄하고 1층과 지하스튜디오로 옮겨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21일 이사회의 결과와 주목된다.

실제 주식감자의 의견이 처음 공식적으로 거론됐던 1월29일 불교TV 이사회에서 주사장은 이수덕 부사장, 윤순년전무와 함께 사직의사를 표명한다 있다. 주사장의 사장 영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윤순년전무의 사표가 8월 8일 수리됨에 따라 주 사장도 불교TV에서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는 사장직을 물러나 최근 정치계로 입문한 허문도사장의 전례에 비해 대두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사장이 10일 현재까지 뚜렷한 행보를 밝히고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 측근에 따르면 "주사장은 국회의원 승계가 발표되지 비서를 시켜 불교TV가 규제를 받는 종합유선방송법과 국회의원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법규상 사장 겸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으로 미뤄 바서는 완전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해 21일 이사회에서 주식 감자 등 주사장의 의견이 관철될 경우 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인 주식 감자에 대해서는 현재 주사장과 대주주인 통도사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장은 213억원의 불교TV 자산을 최소한 50% 정도로 주식 감자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줄 투자자가 대주주로서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자 물색이 쉽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

히 주식 감자를 이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도사주지 신허스님은 만약 주식 감자를 해 주겠다는데도 적당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주주의 권한만 이양한 것이 되니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나 일부만이라도 부채를 해결한다면 언제든지 주식 감자를 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21일 이사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수덕 불교TV 부사장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주사장은 업무보고와 결재를 하는 등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불교TV를 살리는데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최근 자신에게 밝힌 것으로 미뤄 이사들의 적극



◇불교TV는 8일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10층 사무실을 폐쇄하고 지하스튜디오로 옮겼다.

적인 협조만 이뤄진다면 사장직은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주식 감자가 주양자사장의 사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을 내비쳤다. 그러나 불교TV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한 주사장이 국회의원이 된 뒤 생각이 달라져 주식감자를 공식적인 명분으로 내걸고 사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만일 주사장이 또다시 사장직을 물러난다면 허문도사장에 이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한번 불교TV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불교TV를 살리는데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최근 자신에게 밝힌 것으로 미뤄 이사들의 적극

적인 협조만 이뤄진다면 사장직은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주식 감자가 주양자사장의 사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을 내비쳤다. 그러나 불교TV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한 주사장이 국회의원이 된 뒤 생각이 달라져 주식감자를 공식적인 명분으로 내걸고 사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만일 주사장이 또다시 사장직을 물러난다면 허문도사장에 이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한번 불교TV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불교TV를 살리는데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최근 자신에게 밝힌 것으로 미뤄 이사들의 적극

예암종정 사면유시 '의미' 사면논의 본격화

3월총회 사면동의안 처리 관심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이 정대스님 취임 이후 거론됐던 사면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부처님 법이 있는만큼 하루속히 대중들과 논의해서 종단 화합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사면을 실시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해암스님은 정대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장급 스님, 중앙총회회장 법흥스님, 교구본사주지들의 신년하례를 받은 후 발표한 유시를 통해 사면 실시에 따른 적정성을 제시했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중들과 논의해서 하루속히" "종현종법에 의지해서", 사면의 목적을 "종단 화합"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종현종법에 의지한다는 것을 현행 종현상 별빈자의 사면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면의 폭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뒷일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종현을 개정해 사면을 실시하는 것이 결코 종현종법을 뛰어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암 종정의 유시에 따라 사면 논의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사면 실시에 따른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미 정대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사면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사면 실시를 설득했으며, 이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종정스님에 대한 신년하례 후 본사주지들의 인사장을 받는 자리에서 "종정예하의 유시의 말씀과 같이 종현종법에 따라서 사면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회의원이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서도 한발씩 물러서 정계자의 입장에 서서 사면문제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사면 요청을 중앙총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조계종단 최대의 이슈가 되었다. 중앙총회는 3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불립문자라는 말에 속지 마라

6. 선과 언어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일반적으로 선(禪)이라 하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이심전심'의 고사가 대변하듯 언어나 문자로는 안 된다고 한다. 석가세존이 꽃을 든 사연을 가삼만이 알아채고 미소짓듯, 진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선어록을 우리말로 해석한다든지 또는 화두를 풀이하면 큰 일 나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당시 선종을 일으켰던 당사자들도 그랬을까? 아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증명해보자.

첫째, '선의 체험'과 그것을 체험하게 된 상황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선어록은 그런 이야기 모음집이다. 그런데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모음집인 선어록과 '선의 체험'을 혼동한다. 11세기 중국

송나라 시대 선사들의 이야기 모음집 <경덕전등록>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사들이 마음으로 전한 것을 어찌 책으로 만드느냐고 반대했다. 책 만드는 데에 참석한 장락정양(長樂鄭昂)은 이 비난에 대해 이렇게 답변한다.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아무리 전함 없이 전했다 해도, 전해주는 상황이나 연유를 몰라야 어떤 말인가? 선사들이 깨닫게 된 상황과 전후 사연은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연을 모은 것이 선어록이고, 그런 선어록 모음집이 <경덕전등록>이다. 깨닫기까지의 수행과, 깨달은 순간들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선어록이다."

둘째, 중국의 조사들은 '선의 체험'을 일상 생활 속에서 드러내 보임은 물론, 언어로 끝까지 표현하려고 애썼다. 물론 선사들은 '선의 체험'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그 체험에 딱 들어맞

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상대가 어설피면 말로 어물거리면 몽둥이질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낱물 떨어지는 소리에 깨달았다 유명한 중국 경정선원(鏡清禪院)의 도부(864~937)스님은 이런 말을 했다.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대도 쉽지만, 번뇌에서 벗어난 체험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말로 표현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표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고백하는 말이다. 이 어려움을 겪고 나온 대화들이 훗날 <백암록>에 기록된 것이다. 허튼 말이 있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선사들은 자신의 체험을 고스란히 언어나 말로 표현해 보려고 한다. 시인이 체험한 하고 시를 쓰지 않으면 그게 어디 시인가?

물론 선종에서 말을 제한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도 약한 도를 설명하는 논법일 뿐이다. 약산(藥山)에 살던 유엄(惟嚴:751~834)스님은 이런 말을 했다. "말을 아주 끊을 수는 없다. 내가 지금 그대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부교수

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체험은 여하튼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그 표현된 것에 의해 그 당사자의 체험이 제대로 되었는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고 떠돌아다니는 미친놈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불립문자'라는 방곡호 속으로 숨어서도 안 된다.

셋째, 깨달음이란 문자에 의지하지 않으며, 마음의 법은 스스로 깨치는 것이므로 남에 의지해서 얻는 게 아나고 한다. 그렇다. 너무도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깨달은 일이야 주제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유발하는 계기는 있어야 한다. 선어록은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선어록을 보다가 깨친 사람들은 아무 말할 수 없고, 불경을 보다 깨친 사람은 더 많다. 살아계신 석가모니를 본 적이 없는 우

리들이, 그 깨친 이들의 말씀을 적은 책을 보지 않고 어떻게 깨칠 수 있을까? 책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책을 보면서 자신을 관조하다가 깨치는 것이다. 경전도 그렇고 선어록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도책이다. 지도책은 해독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선문답도 해독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

끝으로, 현재의 수행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느냐는 것이다. 즉, 육조해능을 할아버지로 삼아 수행하는 선승이라면, 조계의 선종을 담고 있는 선어록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이정표로 수행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정표가 바로 선어록이다.

'화두'를 왜 '공안(公案)'이라고 불렀을까? '공안'이란 말은 원래 법을 용어로서, 이른바 관공서에 비친 관례 조문이다. 과거의 관례를 참조하여 지금의 문제를 푸는 데에 참조하는 것이 관례집이다. 선 수행의 관례집이 바로 선어록이다. 1,800공안도 과거의 믿을 만한 선사들이 품은 소실한 수행과 깨달음의 선례를 모아 놓은 관례집이다. 관례집은 해독되어야 제 몫을 한다. '불립문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강을 건너기까지는 뗏목에 의지해야 하듯, 지혜가 담긴 문자의 힘을 빌려야 한다.

"30년의 전통" 생활불교 운동의 기수 2000학년도

한국불교 통신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일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본 대학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교역자 양성과 불자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통신대학연혁』

1965. 10. 24. 본 대학의 설립자이신 한정섭박사님께서 강연에 나가지 못하는 스님과 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교육원의 필요성을 인식, 당시 동국역경원장 이운허스님, 화운사 조실 김대은 스님, 동국대학원 원장 김동학박사님을 모시고 통신교재 편찬(12년간)

1976. 7. 18 2년 과정의 불교통신교육원 개원(관허)
1983. 9. 5 불교통신대학 승격
초대학장으로 안덕암대중사 취임
1984. 8. 15 불교통신대학원 1년 과정 개설
초대 대학원장 조중현대중사 취임
1988. 1. 10 제2대 대학원장 한정섭박사 취임
1997. 3. 12 (사)한국불교 교원연맹 이사장 한정섭 대중사 취임
1999. 10. 30 제3대 학장 한정섭이사장 취임
제6대 대학원장 석성훈스님 취임

- 1. 모집학과**
(1)대학 : 불교포교학과, 승가학과, 불교학과
(2)대학원 : 경학과, 논학과, 선학과, 율학과, 상징학과
- 2. 입학자격**
(1)불교포교학과는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2)승가학과는 출가입산 회망자로서 본 대학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합숙훈련이 가능한 자
(3)불교학과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4)대학원 과정은 불교교양대학 이상 수료자
- 3. 교육과정 및 교재**
한국불교통신대학 출판부 간행 "불교통신교재" 및 보조교재와 테이프에 의해서 단계적 교육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함.
- 4.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5.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이력서 1통
(3)주민등록등본 1통 (4)인명함사진 3매
- 6. 원서교부 및 전형**
(1)중앙교육원 02-969-2410 (FAX) 02-969-4981 (2)연수원(상락항 수도원) 0356-584-0657
(3)부산교육원 051-703-7237 (4)대구교육원 053-743-1178 (5)구미교육원 0546-455-1068
(6)충북교육원 0431-223-9026 (7)대전교육원0443-446-3023 (8)안산교육원 0345-483-2667
(9)포천교육원 0357-532-4565 (10)진해교육원 0553-546-4186
(11)하와이교육원 808-943-8015
- 7. 합격자 발표**
심사후 합격자에 한해 합격통지서를 개별 우송함
- 8. 특선**
(1) 재학중 수업료 전액 면제(년 4회 정기교육 수련비만 부담)
(2) 본 대학은 조계종과 통불교를 지향하므로 어느 종파에도 통합
(3) 졸업시 법사(일반), 포교사(스님)자격을 풍수
- 9. 기타 상세한 문의**
한국불교 통신대학 중앙교육원 : 02-962-1666, 969-2410

한국불에술대학 제2기 수강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에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작법무예 기능보유자) 김해강 큰스님의 법음과 법무를 전수하고자 제2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과정 : 기초과정
2.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3. 교육기간 : 각 과정 3개월 기본(1년 과정) - 개강 3월 2일
(매주 수, 목, 금 또는 토 오후 2시-4시: 시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4. 교육등록금 : 매월 10만원
5. 특 전 :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자격증 수여함.
6. 문 의 : 02-962-1666, 969-2410

모집부분	과 목	강 사
기초과정	범음, 법패 강의 및 의식실습, 율법공양,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법) 강의	한정섭 박사
중등과정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바라적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대계 작법무	김진하 교수
고등과정	법회의식(석문의법)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대학과정	삼귀의작법무 영산제 및 운심계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법)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